메트로 2013년 12월 6일 금요일 www.metrobusan.co.kr

Sports p/20

이대호 '2년 8억엔' 계약?

소녀시대 '올해의 노래' 5위 p/17

metro

메트로 2013년 12월 6일 금요일 www.metroseoul.co.kr

정부·경기탓 말고 터파기 다시!

주택 위주 벗어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시급
담합 부르는 턴키·최저가낙찰 시스템도 바꿔야

집중진단 위기의 건설업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 쓰러져가는 건설업계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첫해에만 4·1대책, 8·28대책, 12·3대책 등 벌써 세 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유도해 전세난을 해결하고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되, 특히 미분양 신규 아파트의 분양이 잘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대책의 골자다.

그러나 위기를 자초한 건설사 스스로의 변화 없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결국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키'는 정부나 국회가 아닌 건설사가 쥐고 있는 셈이다.

◆구조적인 한계… 내적 변화가 최선

지난 4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산업 위기 극복과 건설문화 지배 다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건설 위기의 원인은 "시장은 변했는데 문화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외적 환경에 건설사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건설 시장이 어려워지면 자구 노력부터 해야 하는데 정부에 보다 많은 공공 발주와 지속적인 집값 부양만 요구하고 있다"며 "매우 구태의연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준비 없이 만간 중심 시장과 맞닥뜨린 탓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사업 다각화도 늦어졌다. 2000년대 중반 주택 시장에 호황을 보이면서 너도나도 주택 사업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던 게 미분양과 그에 따른 자금난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윤영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는 내적 변화부터 시도해야 한다"며 "해외나 신사업으로 눈을 돌리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 운영 기술 등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업계 스스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를 전문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인류무형유산 납시오!

5일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김치문화축제에서 참도 김치를 임금님께 진상하는 의식을 하고 있다. 이날 한국의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로써 한국은 종묘제례, 판소리 등 총 16건에 이르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연합뉴스

◆투명성 확보 앞장서야

'건설' 했을 때 떠오르는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설 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지금과 같은 위기를 다시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H건설 현장소장이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일이 발생했다. 몇 해 전에는 또 다른 H건설 사장이 현장소장 당시 협력업체를 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을 계기로 담합도 건설사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됐다. 하지만 담합은 건설사뿐 아니라 입찰 관련 제도나 시스템 전체가 투명하게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저가낙찰제나 턴키 제도가 담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영철 단장은 "입찰 시스템 자체를 건설사들이 담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오히려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나서 업체들이 투명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건설사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선옥기자 sun1822@metroseoul.co.kr

월 기본료 1000원짜리 알뜰폰

우체국 9일부터 판매

우체국에서 버스요금보다 저렴한 월 기본료 1000원의 파격적인 알뜰폰 요금제를 판매한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준호)는 우체국 알뜰폰 13종 요금제를 기존보다 저렴하게 개편해 9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판매한다.

이번 요금제는 기본료를 인하하고 후불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이에 따라 음성통화 월 100분 이용 시 기존 통신사 대비 평균 32.8% 저렴하게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출시하는 월 기본료 1000원 요금제는 국내 오프라인 최저 수준으로 음성통화 중심 고객의 수요가 많을 전망이다.

또 간단한 인터넷 서핑과 e메일 제한 SNS가 가능한 기본료 9000원 요금제는 500MB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해 기존 통신사보다 1만2000원가량 저렴하다.

김준호 본부장은 "우체국이 알뜰폰을 판매해 업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음성통화 위주의 고객을 위해 기본료를 더 낮추고 인터넷 사용자를 위해 저렴한 스마트폰 요금제를 준비해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절감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글기자 ksg1@

비트코인 신드롬

기자 수첩
조 선 미
<글로벌부 기자>

"우리도 비트코인 살까? 근데 언제까지 오르려나…"

최근 캐나다인 친구와 화상통화 도중 나눈 대화의 일부다. 공소 통장 잔고만 보면 울고 싶다던 친구는 가상 화폐 비트코인의 폭등 소식에 흥분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 열풍, 아니 광풍이 불고 있다. 전문 투자가는 물론 일반인도 디지털 금과 사재기에 나섰다. 이미 가치가 100% 이상 급등했지만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지금이라도 사겠다는 것이다.

캐나다에는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까지 등장했다.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다.

실체도 없고,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 가상 화폐가 이처럼 폭발적인 반응을 낳는 이유는 뭘까. 국경을 넘나드는 익명 거래와 값싼 수수료, 총 발행량이 제한돼 있는 비트코인의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상적인 화폐에 대한 동경과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 실망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경기를 부양한다며 돈을 마구 찍어내면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먹고살기가 더 힘들다.

비트코인이 화폐 혁명을 불러일으킬지, 물거품으로 변해 하루아침에 사라질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얼마나 큰지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국 정부와 금융 당국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의 진정한 끝은 과연 있는 걸까.

한국 무역 '트리플크라운'

규모 1조달러-최대 수출-최대 흑자 달성…박 대통령 "2020년엔 2조달러"

박근혜 대통령은 "2020년 세계 무역 5강,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수출 산업 육성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역량 제고, 세일즈 외교와 자유무역 기반 강화 등 3대 과제를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5일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올해 사상 최대 수출, 최대 무역 흑자, 3년 연속 무역 1조 달러라는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안주하면 안 된다"면서 "제조업 위주의 무역 구조에서 벗어나 한류 문화 콘텐츠와 게임, 디자인 같은 서비스산업처럼 충분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수출 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수출산업 발굴해야"

이어 "현재 323만 개의 중소·중견기업 중 8만6000개사(2.7%)만이 수출을 하고 있지만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면서 "작지만 강한 중소·중견기업들에 우리 무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외 34개국에 있는 우리 수출지원기관의 무역 정보를 연계·통합해 실시간 제공하고 스마트 통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출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신지역주의에 대응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고 우리 기업들에 우호적인 무역 환경을 만들겠다"며 "세일즈 외교에 참여한 기업들이 발굴한 사업 기회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상회의 성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국가별 특성에 맞는 세일즈 외교 전략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한·미·영 이지스함 남해 집결 5일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영국 해군의 구축함 대어링함(8,500t급·왼쪽)이 입출항하고 있다. 미국 이지스 순양함 샤일로함(9,800t급·오른쪽)과 우리 해군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7,600t급)도 정박해 있다. 한·미·영 3국 함정은 8일부터 남해에서 연합 기동훈련을 벌인다. /연합뉴스

<채동욱 의혹 관련>

불법열람 요청한 안행부 공무원 자택 등 압수수색

靑 행정관 소환조사 마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5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부를 불법 열람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4) 행정관을 전날 저녁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행정관을 상대로 채군 가족부에 대한 불법 열람을 서초구청 조이제(53) 국장에게 요청한 경위와 누구의 부탁에 의한 것인지, 조 국장으로부터 전달받은 개인정보를 어떤 용도로 썼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어 이날 오후 채군의 인적사항 조회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안전행정부 고위 공무원 김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김씨 자택과 경기도에 있는 안행부 소속 기관의 김씨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행정관이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조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열람해달라고 요청해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조 행정관을 직위 해제했다.

/김현정기자 mahiru@

뉴스&뉴스

日언론 "장성택, 부정관여 문제 조사받은 후 숙청"

● 실각설이 전해진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부정에 관여한 문제로 북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한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장씨는 자신이 부장을 맡고 있는 노동당 행정부 부부장 2명이 공개 처형된 11월 하순 전후에 국가안전보위부 등의 조사를 받고 숙청됐다는 것이다. /김현정기자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에 민주 정세균 의원 임명

●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임명됐고, 정개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수호영 의원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기후 인재육성·일자리 창출 기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간담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5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창립식 및 협약기업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진흥원은 올해 ▲WRM을 활용한 기상기후 리스크 관리 ▲기상장비 계측과 오차 보정 기술 ▲AWS 점검 및 장애 처리 기술 ▲기상장비 G2B 입찰과 내외자 조달 실무 ▲기상 시스템 수출입 및 연구라이선스 실무 5개 과정 교육훈련을 실시해 기상기업 재직자 등 107명(현재 기준)의 훈련생을 배출했다.

진흥원은 교육과정 및 규모를 확대·운영해 기상기후 분야 고급 인력 육성과 창조인재 개발을 통한 산업 성장 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관진 "이어도 방공구역 당연히 포함"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5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이어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어도를 KADIZ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보느냐"는 유승민 국방위원장의 질의에 "이어도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이고 해양과학기지가 위치한 자리이기도 하다. 당연히 이어도가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도는 수중 암초로서 영해를 가질 수 없지만 우리 관할 수역"이라면서 "이어도 관할 수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라도, 홍도 인근 영공도 우리 영토기 때문에 영해·영공은 포함돼야 한다"며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이번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첫인사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형표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뒤는 황찬현 신임 감사원장. /뉴시스

미리 크리스마스! 5일 오후 서울 대현동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2013 이화가족 성탄예배'에서 이화유치원 어린이들이 캐럴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 월세 평균 111만원 낸다

자영업자들은 한 달 매출에서 평균 111만원을 월세로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보증금은 월세인 경우 2635만원, 전세 4582만원이었다.

5일 중소기업청은 지난 5~8월 전국 8427개 소상공인 사업체(임차인 7700개·임대인 727개)를 대상으로 한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차인의 95.3%는 보증부 월세를 내고 있으며 전세는 2.8%, 무보증 월세는 1.7%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평균 월세(보증부)는 서울이 17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과밀억제권역 131만원, 광역시 89만원, 기타 지역 86만원 등이었다.

또 입주할 때 내는 권리금은 평균 2748만원으로 서울 4195만원, 과밀억제권 2846만원, 광역시 2426만원, 기타 2118만원 등이었다.

임차인의 69.3%는 현 임대료 인상 상한선(9%)이 높다고 생각했으며 이 중 91.7%는 상한선을 7%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조현정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박정률

네페르티티 흉상 발견

1912년 12월 6일 이집트 아마르나에서 아름답고 화려한 네페르티티 흉상이 발견됐다. 흉상은 고대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인 아크나톤의 왕비이자 투탕카멘의 의붓어머니인 네페르티티로 이 흉상은 이집트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녀는 태양신 아톤을 유일신으로 이집트 정치와 종교를 개혁하려 했던 남편 아크나톤이 죽고 투탕카멘이 뒤를 이을 때까지 그를 대신해 나라를 다스렸다. '미녀가 왔다'라는 이름의 네페르티티는 이름 그대로 눈부신 미모를 자랑했는데 이 흉상도 33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 화려한 아름다움이 유지되고 있다. 현대 여성들도 흉상을 닮은 목걸이와 귀걸이를 즐겨 착용하며 현재 베를린 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최고의 인기 전시물이 되고 있다.

40세 男 39.2년 더 산다

기대여명 전 연령층 증가 · 지난해 태어난 아이 81.4세까지 생존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은 평균 81.4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1.4년으로 10년 전보다 4.4년 연장됐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77.9년, 여자는 84.6년으로 여자의 기대수명이 6.7년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간 기대수명 차이는 1985년(8.4년)을 정점으로 2007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최근 6.7~6.9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기대수명(남자 77.3년, 여자 82.8년)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기대수명은 OECD 회원국보다 남자는 0.6년, 여자는 1.9년 길었다.

앞으로의 생존 가능 기간을 보여주는 기대여명은 여자의 경우 80세 이상 고연령층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증가했다. ▲20세 남자 58.4년, 여자 65.1년 ▲40세 남자 39.2년, 여자 45.5년 ▲60세 남자 21.5년, 여자 26.6년 ▲80세 남자 7.7년, 여자 9.9년 등이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가 암에 걸려 사망할 확률은 남자가 27.6%고 여자는 16.3%였다.

또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확률은 남녀 각각 9.7%, 11.3%고, 심장질환에 의해 사망할 확률은 9.5%, 12.4%인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이들이 암에 걸리지 않으면 기대여명은 남자가 4.7년, 여자는 2.7년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개짖는 소리 싫어서" 119·경찰 부른 남성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난다며 가짜 화재 신고를 해 10여 대의 소방차와 경찰차를 출동시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불잡혔다.

5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23분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3층짜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와 경찰에 접수됐다.

소방차 9대와 구급차 1대, 경찰차 4대가 즉시 출동했지만 신고된 현장 어느 곳에서도 화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

주변 수색에 들어간 경찰은 인근에 숨어 소동을 몰래 지켜보는 이모(46)씨가 허위 신고자임을 직감하고 현장에서 추궁한 결과 자백을 받아냈다.

이씨는 경찰서에서 "이웃집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는 것에 화가 나 이웃을 놀려주려고 가짜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씨는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편의점 쇠파이프 강도 소주병 지문 남겨 덜미

편의점 종업원을 쇠파이프로 위협해 강도짓을 한 남성이 소주병에 남은 지문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5일 편의점에서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성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2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편의점에 후드티와 모자를 착용한 채 들어가 길이 30㎝ 쇠파이프로 직원 손모(19)씨를 위협해 금고 안에 있던 4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씨가 편의점에서 손님 인 척 만진 소주병에서 찾아낸 조각 지문을 바탕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행 7시간여 만에 사하구의 한 PC방에서 성씨를 붙잡았다.

고향집 감 따는 일에 의경들 동원한 경감

부산지방경찰청은 부하 직원과 의경을 고향집 감 따는 데 동원한 A 경감에게 감봉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중순 A 경감이 부하 직원 4명과 의경 4명을 고향으로 데려가 감을 따게 하는 등 수시로 사적인 일을 시켰다는 내용의 투서를 받아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이에 앞서 투서가 접수된 직후 A 경감을 대기발령했다.

엄궁동 주택가 도로 '뻥' 뚫린다

좁은 기존 도로에 옹벽 버텨 35년간 통행 불편
사상구 주민 등 '2단도로' 확장 개설 합의 '첫삽'

엄궁동주민센터에서 엄궁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 35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사상구는 5일 오후 엄궁동 하성탕 앞 도로에서 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졌다.

지역 주민들의 감회는 남달랐다.

이날 엄궁동 주민자치위원장 양동만(59)씨는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처럼 기분이 좋다"며 "내년 5월 도로가 완공 개통되면 마을 잔치라도 열어 축하할 생각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도로는 총 연장 165m, 너비 10m의 도로로 지난 1978년 12월 6일 계획도로로 지정됐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과 옹벽 처리 문제 및 지역 주민들 간의 이견 등으로 오랜 기간 방치되었다.

특히 기존 도로 폭이 너무 좁고 경사가 심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 차량이 지나갈 수 없어 운전자들끼리 시비가 끊이질 않았다.

더욱이 제대로 통행하기 어려운 도로 한가운데에 좌고 높이 14m의 거대한 옹벽이 만리장성처럼 버티고 있어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눠져 있다.

엄궁동주민센터~엄궁아파트 간 도로 개설공사 현장. 현장 한가운데에 옹벽이 도로 쪽으로 튀어나와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시의회 관계자들을 수차례 만나 사업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 결과 총 28억4000만원의 사업비(공사비 21억원, 보상비 7억원)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또 주민 설명회도 세 차례나 개최해 흩어진 주민들의 의견을 한데로 모았다.

사실 이 도로는 도로의 기하구조(종·횡단, 도로의 평면 선형, 종단 선형이나 횡단 형상 등에 관한 설계)상 옹벽으로 윗마을과 아랫마을을 한번에 연결할 수 없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청 관계자와 건설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은 끝에 높이가 다른 '2단 도로'라는 해법을 찾아냈다.

동주민센터에서 엄궁아파트 방향으로 상행선 도로는 기존 도로 높이로 개설하는 한편, 엄궁아파트에서 동주민센터 쪽 하행선 도로는 10m 정도 낮춰 개설하는 모안을 도출했다. 또 옹벽은 부산대학교 엄종필 교수 자문에 따라 최신 공법으로 튼튼하게 새로 쌓기로 했다.

이 도로는 내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장학균기자 jhk@metroseoul.co.kr

부산은행, 문화·예술 지원 '10대 후원기업상' 수상 BS금융그룹 부산은행(은행장 겸 은행장 성세환)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3층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가 주최한 '예술이 빛나는 1% 행사'에서 문화·예술 지원 '10대 후원기업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백경호(오른쪽) 부산은행 부행장이 권영빈 위원장으로부터 상패를 받는 모습.

엄궁유수지, '악취 없는' 인공습지로

사상구, 국·시비 80억 들여 비점오염저감시설 공사

악취 민원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는 부산 엄궁유수지가 오염저감시설을 갖춘 인공 습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부산 사상구는 감전천 말단부에 있는 엄궁유수지에 비점오염저감 사업시설 공사를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국·시비 80억원이 소요되는 이번 공사는 2015년 7월 완공 예정이다.

구는 엄궁유수지 내 3500㎡ 규모의 저류시설을 만들어 비가 오면 감전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주변 사상공단과 주택가의 각종 비점오염원을 정화할 계획이다.

저류시설에 모인 물은 침전 작용을 거쳐 오염수는 방류관을 타고 강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진다.

저류시설 인근에는 6000㎡ 규모의 인공 생태습지가 조성될 예정인데 저류시설에서 걸러진 물이 이곳으로 보내져 자연 정화를 거쳐 낙동강으로 흘러갈 예정이다.

저류시설과 습지가 조성되면 과거 중금속을 포함한 폐수와 생활오수가 모여 악취가 심했던 엄궁유수지의 이미지가 바뀔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예보 '구멍' '평소 3배'에도 침묵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가운데 부산시의 미세먼지 예보 시스템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지역 미세먼지 주의보는 동·서부산권으로 나눠 시내 19개 지점 측정치 농도가 평균 200㎍/㎥ 이상 상태에서 2시간 지속되야 발령된다.

문제는 평균 200㎍/㎥에 도달하지 못할 때는 시정상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없어 노약자나 어린이 등 취약층은 무방비로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4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11시 191㎍/㎥까지 치솟는 등 부산 서부지역 대부분이 200㎍/㎥에 육박했지만 부산시는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언론사 등을 통해 알리지 않았다. 이날 서부산지역 미세먼지 농도 수치는 환자나 어린이, 노약자 등 민감군에게 유해한 영향을 유발하는 수준이다.

부산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은 주의보 단계 아래 '예보(좋음-보통-민감군-나쁨-매우 나쁨-위험)'를 발령하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능동적으로 알리기보다는 문자메시지 신청자 중심의 제한적 예보에 그치고 있다.

인제대 2014학년도 정시모집 스타트

가군 일반·자기추천자 전형 나·다군서 수능우수자 모집

인제대학교가 2014학년도 정시모집에 들어간다.

5일 대학 측에 따르면 가군 449명, 나군 123명, 다군 244명으로 나눠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모집 단위는 가군과 다군에 분할 모집하고 의예과, 간호학과를 포함한 총 16개 모집 단위는 나군에서도 모집한다. 가군에서는 일반학생 전형과 자기추천자 전형을 실시하고 나·다군에서는 수능우수자 전형을 시행한다.

가군 일반전형 대부분 학과에서는 수능 89% 학생부 11%를 반영한다. 단 의예과와 간호학과를 포함한 8개 학부·과에 한해 면접고사 성적을 반영한다. 가군 자기추천자 전형은 면접 100%로 경영통상학과(야간)에서만 선발한다. 나군과 다군에서 실시하는 수능우수자 전형은 수능 성적만을 반영하고 예체능계열의 경우 실기고사 성적을 추가로 반영한다.

수능 성적 반영에 있어 의예과는 국어A, 수학B, 영어B, 과학탐구(2과목)를 반영하고, 그 외 모집 단위는 A·B 구분 없이 반영한다. 단 자연계열 모집 단위는 수학B에 10%를, 영어B에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국어B에 10%를, 영어B에 20%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예체능계열 모집 단위는 영어B에만 20% 가산점을 부여한다.

수능 성적 반영 영역은 전년도와는 달리 4개 영역의 표준점수를 모두 반영한다.

탐구영역은 2개 과목 표준점수의 합을 반영한다. 단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탐구영역의 1개 과목으로 인정하되 의예과는 제외한다.

/장학균기자

물 만난 '동북이' 벌써 동중국해

해운대서 방류 50일 만에 위치 추적장치로 확인
따뜻한 남쪽서 겨울나고 내년 한반도 귀환 기대

부산아쿠아리움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지난 10월 해운대에서 방류한 멸종위기종 푸른바다거북 '동북이'가 약 50여 일 만에 동중국해 중국 인근 수역까지 진출했다고 5일 밝혔다.

아쿠아리움 측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부착한 푸른바다거북 동북이가 해운대 바닷가에서 방류된 후 약 2주간 포착되지 않다가 11월 2일 최초로 남해 먼바다에서 생존이 확인됐다. 이후 제주도에서 머무른 후 남서쪽으로 이동, 지난 12월 4일에는 동중국해 중국 인근 수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공위성 추적장치는 동북이가 숨을 쉬기 위해 해수면으로 올라올 때마다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아 위치가 확인된다.

바다거북은 열대 및 아열대 온대 해역에서 주로 분포하며 수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질 경우 생존할 수 없다. 이에 겨울철 수온이 감소함에 따라 따뜻한 남쪽으로 더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북이는 2012년 6월 말 경남 거제 이수도에서 정치망에 걸려 등갑이 깨진 채로 발견됐다. 이후 아쿠아리움 측이 1년4개월간 건강 질병 관리 및 연구를 병행해 지난 10월

지난 10월 17일 해운대 바다를 통해 방류되는 푸른바다거북 '동북이'의 모습.

방류 이후 50여 일 동안의 동북이 이동 경로.

17일 이동 경로와 서식 형태 분석을 위해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부착한 후 방류했다. 푸른바다거북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해양생물전시부 김문진 관장은 "푸른바다거북 동북이가 겨울철 수온이 낮아짐에 따라 따뜻한 남쪽에서 겨울을 보낸 것 같다"며 "올겨울을 나고 내년에 다시 한반도 수역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아쿠아리움은 2007년 11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동물 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많은 해양생물 구조와 치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황하균기자 jkk@metroseoul.co.kr

민주공원 재계약기간 '3년→1년' 단축 논란

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관리하는 부산 민주공원의 재계약 갱신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논란이 된 기념사업회의 방만 경영 문제에 대해 재계약 기간을 1년으로 줄여 매년 평가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념사업회 측은 장기적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관리하는 민주공원의 위탁운영계약은 올해 말 종료된다.

내년 관리 공백을 막으려면 연말까지 계약이 갱신되어야 하는데 시기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 그동안 3년이던 민주공원의 재계약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상태다.

기념사업회 측은 당장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박영관 민주공원 관장은 "계약 기간이 너무 짧아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판단은 예측할 수 없고 시설에 페인트칠을 하는 단건의 사업도 추진하기 부담스럽게 됐다"며 업무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방만 경영 등의 논란이 계속 이어지오는 상황에서 매년 사업 수행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줄이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시가 민주공원의 방만 경영에 대한 일부 시의원들의 강경 비판 기류를 감안해 '먼저 매를 든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재계약 기간 단축안에도 여전히 날선 목소리를 내고 있어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노인 일자리 '별따기' 대기자 6750명 달해

부산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 기술이 필요 없는 공익형 노인 일자리 참여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대기자 수가 지난 9월 말 현재 67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지역 노인 일자리 수는 공익형 7846개, 교육형 2428개, 복지형 4431개, 시장형 1658개, 인력파견형 672개 등 1만7034개다.

올해 3083명이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전출 타 일자리 참여 등의 사유로 빈자리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대기자가 넘쳐나고 있다. 대기자가 희망하는 일자리에 참여하려면 수개월씩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 '실험동물 사용관리' 국제인증

국립대 최초 AAALAC 공인
국내에선 식약처 등 15곳뿐

국립대 최초로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학장 허상용)이 국제실험동물인증협회(AAALAC)로부터 실험동물의 사용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인증(Full accreditation)을 획득했다.

국제실험동물인증협회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험동물의 사용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기구로 37개국 900여 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약 700여 개의 실험동물사설에서 동물실험이 수행되고 있으나 국제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대병원, 연세대 등 15개 기관만이 획득했다.

부산대 청정실험동물센터에서 연구원이 실험동물로부터 새로운 천연 소재의 질병 치료 효능을 관찰하고 있다.

대학은 이번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올해 2월 인증서를 제출했으며 9월 실험동물 관리 프로그램과 시설에 대한 전문가 실사를 거쳐 11월 4일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이에 앞서 부산대는 2008년 청정실험동물센터를 개소해 이듬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험동물관련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황대연 청정실험동물센터장은 "이번 인증으로 의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 수준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하균기자

market index <5일>

지표	수치	변동
코스피	1984.77	(-2.03)
코스닥	506.52	(+0.04)
금리	3.02	(-0.01)
환율	1059.50	(-1.50)

뉴스&뉴스

알뜰주유소 1000호점 오픈 5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에 알뜰주유소 1000호점이 문을 열었다. 2011년 12월 1호점 개소 이래 1년 11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수도권 아파트 7만3000채 전세 1억 급등

수도권 아파트 53만여 가구의 전셋값이 올 들어 5000만원 이상 급등했다. 1억원 넘게 오른 곳도 7만3000여 가구나 됐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아파트 8428단지 367만9245가구를 대상으로 전셋값 상승폭을 조사한 결과 올 들어 11월까지 5000만원 이상 급등한 가구가 총 53만441가구로 나타났다. 전체의 14.4%에 달한다.

이 가운데 5000만~1억원 미만 상승한 가구가 45만7128가구로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1억~2억원 미만으로 오른 가구도 7만569가구에 달했다. 2744가구는 2억원 이상 급등했다.

올해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전용면적(이하 동일) 201㎡로 10억원에서 12억6500만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어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216㎡가 12억50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 포레' 217㎡는 15억원에서 17억5000만원으로 2억5000만원씩 올랐다. /이번화기자

단말기 3인방 '단통법' 3색 시각

정부·이통사 관계자와 긴담회 …삼성 '우회 반대' LG '찬성' 팬택 '애매모호'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사, 제조사업자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단 삼성전자는 단통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 이경재 방통위원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배원복 LG전자 부사장, 박창진 팬택 부사장, 이형희 SK텔레콤 부사장, 표현명 KT 대표 직무대행,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정부와 제조사, 이통사 관계자들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미래부가 단통법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업계가 제시하는 대안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최문기 장관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특히 이날 제조사 측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렸다. 그간 정부와 이동사, 시민단체는 단통법에 찬성입장을 밝힌 반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제조사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법안에는 제조사의 단말 판매 현황, 관련 비용 또는 수익 등 단말 유통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했는데 이런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글로벌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일부 법안은 기존 공정거래법 테두리 내에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영업비밀성 자료가 있을 수 있지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부로 공개되지 않아 문제될 것이 없다"며 "제조사 조사는 공정위, 방통위, 미래부가 협의해 방통위가 이용자 차별을 조사하도록 협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와 달리 LG전자는 단통법 찬성에 힘을 실었다. 배원복 LG전자 부사장은 "일부 오해도 있지만 LG전자는 기본적으로 단통법에 찬성한다"며 "영업비밀 자료와 관련, 법 통과 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팬택은 애매한 입장을 보였다. 박창진 팬택 부사장은 "단통법 취지나 배경, 목적에 반대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면서도 "단통법이 지역과 시기에 따라 널뛰는 시장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더 상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재용기자 ly0405@metroseoul.co.kr

KT R&D 로드쇼 시선집중 KT는 5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소재한 KT 연구개발센터에서 '연구개발(R&D) 로드쇼 2013'을 개최했으며 KT 주요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사업부, 그룹사의 R&D 성과를 전시하고 국내 주요 대학과의 공동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대출 증가율>예금 증가율

대출 증가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예금 증가율을 넘어섰다.

5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9월 은행들이 받은 총 예금 평균 잔액은 99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2월 현재 잔액은 1000조원을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예금 증가율은 2.7%에 머물렀다.

한 은행 관계자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예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대출은 꾸준히 늘었다. 9월 은행들이 내준 총 대출 평균 잔액은 1138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 증가했다.

예금 증가율이 정체되다시피 하는 사이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현상은 올 들어 나타났다.

이처럼 예금 증가세가 둔화하고,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진 배경으로는 정부의 정책과 최근의 기업 자금 사정 등이 꼽힌다. /김민지기자 minj@

한방칼럼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1121-중-41705호 (광고)

혈액순환장애는 어혈을 제거

어느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가쁘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 어깨 근육과 뒷목이 뻣뻣하다. 두통이 잦고 어지럼증이 있다. 쉬어도 몸이 무겁고 개운치 않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어혈(혈전, 순환되지 않는 피)을 혈액순환 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본다.

이 어혈로 인해 만성두통이나 편가증, 목·어깨결림, 손발저림, 수족냉증, 심장질환, 구안와사, 고혈압, 중풍, 동맥경화, 안면마비, 부정맥 등 각종 순환기계 질병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런 질환들은 중년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혈관이 노화되어 각종 노폐물이 혈관에 끼이기 때문이다. 건강의 방적 요소인 어혈을 약물이나 수술요법을 쓰지 않고 몸 밖으로 뽑아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한의학적 방법이 금진옥액 요법이다.

금진옥액요법은 혼히 죽은피를 빼낸다고 하는 사혈요법의 일종. 금진옥액이라는 말은 사혈을 하는 부위가 혀 아래의 금진, 옥액이라고 하는 혈자리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이는 혀 아래의 정맥에서 어혈을 제거하는 치료법으로 기존의 사혈요법이 소량의 혈액을 제거하는데 그친 반면 상당히 많은 양의 어혈을 제거함으로써 혈액순환 장애로 오는 각종 질병에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금진옥액요법 시술에서는 입안에서 내지 실타래 같은 것이 나온다. 이것은 몸 안에 있던 혈유소들이 시술한 부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으로 정상적인 반응이나 대게 섬유소가 많이 나오고 피가 탁할수록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어혈이 많은 상태라 볼 수 있다. 시술할 때 따끔할 정도의 통증만 느낄 뿐이다. 단 혈관질성 빈혈 질무병 환자는 시술할 수 없다. 어혈은 나이가 늘면서 자연적으로 타박상, 골절 등 교통사고나 스트레스, 장시간 눕거나 앉아있어도 생긴다.

적당한 운동, 금연, 금주, 녹황색 야채나 등푸른 생선을 먹는 것이 혈액순환장애 질환 예방에 좋다. 또 한 달맞이한의원(www.moonhill.co.kr)의 해독요법은 금진옥액 외에도 간정화자료, 청장요법 등으로 인체 전화를 통해 각종 질병을 다스린다.

가공된 음식의 발달 및 잘못된 식습관, 잘못된 배변습관으로 인해 대장에는 묵은 변이나 숙변이 고여 있게 되어 우리 몸에 유해한 부패한 가스가 신체에 흡수되어 인체의 면역이 떨어진다. 묵은 변이나 숙변을 제거하여 대장을 정화해주는 정장요법은 인체의 해독에서 중요한 것이다.

또한 간 속에 분포한 담관에는 담즙찌꺼기나 노폐물 등이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간이 내시하고 남은 찌꺼기를 위험이 배출 할 수 있도록 하수구를 청소하듯이 정화해주는 간정화치료를 시행하면 간 기능이 좋아지면서 피로가 덜어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이 정장요법과 간정화치료는 금진옥액요법과 함께 인체의 독소를 배출시키는 중요한 해독요법이다. 단 대장 및 직장 간에 질병이 있는 환자는 진료 및 상담 후 시술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

한의학박사 육경구 원장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142
TEL 02)721-9800 FAX 02)730-151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충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직대 김용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31~3
부산광고문의 051)632-2100
독자센터 02)721-9835

포털·SNS도 '예능'한다

네이트 '아이돌24시' 사진서비스·페이스북, 실시간 스타 인터뷰도

연예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뷰, 아이돌 사진 서비스… IT업계에 예능 바람이 불고 있다.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끄는 데다 연말 방송 시상식을 앞두고 업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다. 특히 네이트와 페이스북은 이번달부터 연예 관련 서비스를 정식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포털 네이트는 '아이돌 24시(news.nate.com/ent/idol24)'란 연예인 사진 서비스를 지난 3일 출시했다. '한눈에 보는 스타들의 일상'이란 부제의 이 서비스는 스타 공항 패션, 아이돌 독점 사진 등의 다양한 사진을 무료로 공개한다. 연예 미제와 비슷한 이 서비스를 통해 네이트는 이용자 유입률을 높여 연예 포토 커뮤니티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페이스북은 스타와 팬들의 실시간 일문일답 '페이스북 Q&A' 제어

자를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이다.

페이스북 Q&A는 스타가 인터뷰 시작을 알리는 게시물을 올리면 팬들이 댓글로 해당 스타에게 질문을 남기는 형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일 개그맨 김준호(사진)를 첫 주인공으로 국내판 '페이스북 Q&A(www.facebook.com/takeasmile)'가 시작됐다. KBS2 개그콘서트 '좀비' 역할로 인기몰이 중인 그는 '자신의 개그 코너 중 가장 애착이 가는 코너는?' 이란 질문에 '쓸쓸한 인생. 정말 쓸쓸했잖아~' 라는 식으로 실시간 SNS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이날 오후 7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팬들과 100여 개의 일문일답을 벌였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앞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국내 스타 및 공인들을 적극 섭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용휘기자 unique@metroseoul.co.kr

에이수스 '트랜스포머 북 트리오' 출시 에이수스는 5일 노트북, 태블릿, 디스크톱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북 트리오'를 공개했다. 11.6인치 분리 가능한 디스플레이와 윈도8 및 안드로이드의 듀얼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사용자는 70만여 개의 구글플레이 앱과 윈도 스토어의 5만여 개 앱을 모두 즐길 수 있다. /에이수스 제공

삼성전자 161명 임원승진 '역대 최대'

삼성그룹 정기인사 통해 '성과 보상' 원칙 재확인

삼성이 475명에 이르는 정기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인 161명의 임원 승진 인사가 진행돼 "성과 있는 곳에 보상 있다"는 인사 원칙이 재확인됐다. 또 여성 임원도 15명이 배출돼 사상 최대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

삼성은 5일 '2014년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전체 승진 규모는 475명으로 예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2006년 이후 최대 규모인 85명을 발탁 승진했다.

우선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삼성전자 신임 임원 승진은 지난 2012년 133명, 2013년 157명이 이어 이번에 161명이 승진했다. 이 중 세트 부문 발탁 승진은 35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휴대전화 분야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며 전 대륙 시장점유율 1위 달성에 기여한 무선 핵심 기여자가 대거 승진됐다.

또 여성 인력에 대한 사상 최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여성의 연도별 승진 규모는 2012년 9명에서 2013년 12명, 2014년 15명이다.

여성 승진자 중 60%인 9명은 발탁 승진으로 성별은 불문하고 성과와 능력에 따른 전략적 승진 인사라는 설명이다.

삼성은 또 해외거점 우수 인력의 본사 임원 승진을 확대했다. 외국인의 승진 규모도 역대 최대인 12명에 달한다. 특히 2013년 미국 팀 백스터 부사장에 이어 두 번째로 왕통 전무(삼성전자 북경연구소장 겸 중국 휴대폰 영업담당)를 본사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전략 시장인 중국의 휴대전화 영업을 책임지는 중책을 부여했다.

삼성은 이번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경영진 인사를 마무리했고, 조만간 각 사별로 조직 개편과 보직 인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균기자 ksea@

이르면 2015년 한·호주 FTA

발효 즉시 車관세 철폐

이르면 2015년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다. 자동차 관세는 즉시 없어지고 쇠고기 관세는 2030년 철폐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앤드루 롭 호주 통상장관과 회담을 열어 한-호주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 브리핑에서 "호주는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고, 우리는 수입액 기준 92.4%(품목 수 기준 90.8%)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가솔린 중형차, 가솔린 소형차 등 20개 세번에 대해 관세 5%를 즉시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를 즉시 철폐 조건으로 타결한 것은 한·호주 FTA가 처음이다.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관세율 5%), 전기기기(대부분 5%), 일반기계(5%) 대부분의 관세도 즉시 철폐된다.

이와 더불어 한·미 FTA 수준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면 쇠고기의 수입 관세를 매년 2~3% 단계적으로 낮춰 15년차에 완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쌀과 분유, 과일(사과·배·감 등), 대두, 감자, 글, 명태 등 주요 민감 품목들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

/가국실기자

잦은 자연재해로 車 종합보험 가입률 상승

올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률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자량 대수 대비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률은 59.1%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말 56.8%보다 2.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최근 5년간 종합보험 가입률 추이를 보면, 상승폭은 매년 0.4~1.7%포인트 수준이었다.

자기 차량 손해담보 가입률도 종합보험 가입률과 비슷한 상승세를 보였다. 자기 차량 손해담보 가입률은 60.1%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은 빈번해진 자연재해가 자기 차량 손해담보 가입률의 꾸준한 상승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9월 현재 등록 차량은 1923만여 대로 파악됐다.

/석원우기자

'손안의 홈시어터'

팬택 '베가 시크릿 업' 공개
'노트'보다 작은 5.6인치 채택
무손실 음원 등 사운드 강화

팬택이 지난 10월 출시한 '베가 시크릿 노트'보다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음향 효과를 앞세운 '베가 시크릿 업'을 5일 공개했다.

베가 시크릿 업은 기존 6인치 베가 시크릿 노트보다 다소 아담한 5.6인치를 채택했다. 직접 써 본 베가 시크릿 업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느낌을 안겼다.

이날 신제품 출시회에서 선보인 베가 시크릿 업의 음장 효과는 귀를 번쩍 뜨이게 했다. 무손실 음원(FLAC) 재생과 음역폭 확장 및 소음 차단 솔루션인 퀄컴사의 DRE 기술을 적용해 원음 그대로의 생생한 음질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별도의 음향장치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여러 사람들과 동시에 즐기며 역동적인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운드 케이스'를 개발, 적용했다. 사운드 케이스를 장착하기 전과 장착한 후의 음향 효과의 차이는 매우 컸다. 진동을 통해 음량을 증폭시키는 피에조(Piezo) 기술이 탑재돼 접촉하는 물체에 따라 음량과 음색이 달라진다. 팬택은 이 사운드 케이스를 베가 시크릿 업 구매자 2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무료 제공한다.

보안에도 보다 심혈을 기울였다는 느낌이 들었다. 새롭게 선보인 '시크릿 블라인드'가 대표적이다. 시크릿 블라인드는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등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 화면을 가릴 수 있는 창(블라인드)을 이용해 주위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어울러 일반 모드와 시크릿 모드를 빠르게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시크릿 모드를 전환하는 데 불편했던 점을 시크릿 키만으로 어떤 화면에서도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문지욱 팬택 부사장은 "전체 안드로이드 시장의 2%를 베가 시크릿 업 이용자로 만드는 게 목표"라며 "가격은 베가 시크릿 노트와 다소 차별화를 둬 90만원대 초반에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가 시크릿 업은 10일 이통 3사를 통해 출시된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5일 베가 시크릿 업 출시 행사 모습. /연합뉴스

신한 CMA체크카드 '교통결제' 되네

신한금융투자가 업계 최초로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CMA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기존 CMA 체크카드(이하 체크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돼 카드 한 장으로 세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세 가지 혜택은 체크카드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공제율 30%), CMA 기능에 따른 금리(MMW 수시물 2.58%) 수익, 카드결제를 통한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이다.

증권사 체크카드는 하루만 맡겨도 은행보다 높은 금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스마트한 재테크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다. 다만 교통카드 기능이 없어서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으로 지적됐다.

새롭게 선보인 카드는 신한카드와 제휴를 통해 출시된 '러브 체크교통카드'다. 이 카드는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적립(5%), GS칼텍스 주유 할인(40원),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놀이공원 할인(30~50%)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다.

/김민지기자 minji@

파나소닉 나노이온 헤어기기

파나소닉코리아가 나노이온 헤어 스트레이트너 'EH-HS95'를 출시했다.

EH-HS95는 기기의 전원을 켰을 때 생성되는 나노이온이 모발의 수분 공급과 함께 수분 증발을 막아준다. 일반 헤어 스트레이트너로 손질했을 때보다 모발의 수분량을 약 14.5%까지 회복시켜 준다. 레드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7만9000원이다.

피타 스포츠캠 '블랙뷰 SC500'

차량용 블랙박스 및 영상디지털기기 전문업체 피타소프트가 스포츠캠 '블랙뷰 스포츠 SC500'을 출시했다.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나만의 영상, 사진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수중 촬영이나 초고속 촬영(슬로모션), 타임랩스 등 초소형 스포츠캠만의 특별한 기능을 제공한다. 가격은 37만9000원이다.

이중근 회장 저서 경찰청 기증

재계 순위 19위(민간기업 기준)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은 자신의 편저서 '6·25전쟁 1129일'을 전국의 경찰에 보급한다.

경찰청은 전달받은 도서를 직속 기관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 및 지구대 등에 보급해 경찰들에게 6·25전쟁의 실상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기 위한 참고도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노숙인에 독감백신 무료접종

통합헬스케어 기업 '전공' 살린 봉사활동 두각
길고양이 보호 '라이브 노킹' 캠페인 등 감동

시크릿 노트

사노피그룹의 온정 나눔

옷을 몇 겹씩 껴입어도 추운 겨울이다. 잠시 기온이 올라가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한파 생각에 옷깃을 더 단단히 여미기도 한다.

우리가 이처럼 한파 소식을 걱정할 때 찾아오지도 않은 추위를 의식하고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의 온정이 필요한 노숙인이다. 또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람과 같은 생명의 가치를 지닌 길고양이들에게도 겨울은 유난히 혹독한 계절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잠시나마 추위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사노피(Sanofi)그룹이 작지만 훈훈한 손길을 내민 것.

사실 사노피그룹은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 사노피 파스퇴르, 젠자임 코리아, 메리알 코리아로 구성된 통합 헬스케어 기업이다. 이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인 자기 분야에 맞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만성·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정서 지유를 위한 '조력산타' 와 암 생존자를 위한 정서 지유 프로그램 '초록나우' 다.

이와 함께 백신을 연구하고 공급하는 사노피 파스퇴르는 노숙인을 위한 프로그램인 '헬핑핸즈'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지난해부터 노숙인에게 무료로 독감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비영리 시민단체인 거리의천사들과 함께 서울지역 주요 지하철역을 다니며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 노숙인에게 의류를 제공하는 '나 빅 느람'에 동참하기도 했다.

동물의약품을 생산하는 메리알 코리아 역시 유기동물 보호 프로그램 '헬핑더포(Helping the Paws)'를 마련하고 지금은 '라이프 노킹 캠페인(Life Knocking Campaign)'을 후원하고 있다. 길고양이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자동차 보닛에서 잠을 자는데 어린 길고양이들은 차가 출발한 것도 모른 채 계속 잠을 잔다. 이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는데 메리알 코리아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컨설팅 그룹과 함께 이런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고 길고양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차가 출발하기 전 2~3번의 노크(KNOCK)를 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주차된 차의 본손잡이에 '라이프 노킹(LIFE KNOCKING)' 캠페인 시인 유 걸어 캠페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을 통해 동참자도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희귀질환치료제를 담당하는 젠자임 코리아도 현재 또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유난히 추울 것으로 전망되는 겨울이지만 다 함께 서로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사노피의 훈훈함이 앞으로도 추위를 덮어주길 바란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사노피그룹은 각 계열사를 통해 사회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을 나누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PRADA 13일 아주대서 '위키움'

한국제약협회는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PRADA)이 오는 13일 아주대에서 '글로벌 혁신 개량 신약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별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9차 위키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키움은 심포지엄과 워크숍이 융합된 형태를 말하는데 오전에는 박은석 성균관대 약대 교수와 정윤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단장 등이 개량 신약의 글로벌 동향, 국가 지원 및 글로벌 제약 시장 전망 등을 발표한다. 또 오후에는 이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부 심사부장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규제 현황'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치고 전문가들이 유럽과 중국 진출 전략 및 해외 진출을 위한 특허 전략 등을 논의한다.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허범전 아주대 약대 학장은 "한국 제약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개량 신약 개발은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위키움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단은 의약품 연구·개발 기술지원을 통한 건전한 산학 공조 체제를 구축해 차별화된 제형과 기술 및 우수 의약품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난 2010년 설립됐다. /황재용기자

천식 병용 치료제 '플루티폼' 임상 입증

한국먼디파마 개발 약품 식약처 허가… 내년 출시

지난해 호흡기 치료제 사업부를 신설한 한국먼디파마가 호흡기질환 영역에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한국먼디파마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천식 치료를 위한 새로운 병용 치료제인 '플루티폼'을 허가받았다.

플루티폼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보이는 흡입용 스테로이드인 플루티카손과 신속한 작용 발현으로 기관지 확장 효과를 가진 지속성 베타2 효능약인 포르모테롤을 최초로 하나의 용기에 담은 흡입제로 고용량(250/10㎍), 중간 용량(125/5㎍), 저용량(50/5㎍) 등 총 3가지 용량으로 구성돼 있다.

플루티폼의 효과와 안전성은 5000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을 통해 확인됐다. 플루티폼은 플루티카손을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보다 천식 증상 점수, 증상이 없는 날과 수면장애가 없는 날의 일수를 개선시켰으며 플루티카손과 포르모테롤을 각각의 흡입기로 병용 투여할 경우와 비교해도 폐기능 증가 폭과 천식 증상 조절이 유사하게 개선됐다.

이와 함께 한국먼디파마는 플루티폼 허가를 계기로 호흡기 치료제 파이프라인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종호 먼디파마 한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 총괄사장은 "플루티폼은 기존 치료제로 증상 조절에 실패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통증 치료제 영역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먼디파마가 새롭게 진출하는 분야가 호흡기 치료제"라고 말했다.

특히 이 사장은 "앞으로도 한국먼디파마는 천식을 비롯한 다양한 호흡기질환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국내 환자들 치료에 힘을 보태는 것은 물론 파이프라인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플루티폼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한국먼디파마는 제품 출시 후 본격적인 제품 영업 및 마케팅을 시작할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이종호 한국먼디파마 사장이 천식 치료제 플루티폼(작은 사진)을 소개하며 호흡기 치료제 영역 진출을 선언했다.

뉴스 & 뉴스

게이츠재단과 공동 연구

●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최근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재단과 백신의 열 저항력을 높여 백신 냉장 유통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GSK와 게이츠재단은 이 협약을 통해 백신 내열성 연구에 18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할 예정이며 GSK 연구진은 이번 협약을 통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백신의 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제를 개발하는 연구에 몰입한다.

'CT-P27' 타미플루 내성 약효

● 셀트리온은 현재 개발 중인 첫 신약인 종합독감치료제 'CT-P27'이 '타미플루'에 내성을 가진 인플루엔자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중화 실험에서 CT-P27은 타미플루 등 뉴라미니데이스억제제(NAI, Neuraminidase Inhibitor)에 내성을 보이는 조류독감과 신종플루 변종 바이러스에 모두 효과를 보였으며 현재 CT-P27의 2상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고혈압 약 '노바스크 브이'

● 한국화이자가 암로디핀·발사르탄 복합제인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 브이'를 출시했다.

노바스크 브이는 이미 충분히 효과가 검증된 암로디핀베실레이트와 발사르탄의 복합제로 단일 요법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게 우수한 혈압 강하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다양한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 프로파일을 갖췄다.

김동엽 상무 재무총괄 임명

●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는 최근 재무총괄책임자로 김동엽 상무를 임명했다. 김 상무는 글로벌 제약기업에서 1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길리어드의 국내 사업 전반에 대한 재정 계획 및 관리, 회계 등 재무 부문을 총괄할 예정이다.

김 상무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국계 글로벌 제약기업인 코스피라코리아에서 재무회계를 총괄하는 재무사업부 상무를 역임한 바 있다.

'오렌시아' 보험 급여 확대

● 한국BMS제약은 최근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오렌시아'가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오렌시아 서브큐 프리필드 시린지' 125㎎의 피하주사 요법도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오렌시아는 류머티즘 관절염을 유발하는 주요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자극신호를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치료제다.

응답하라! 복고게임

왼쪽부터 프린세스메이커, 돌아온 액션퍼즐패밀리, 진짜 사나이

軍 소재 '진짜 사나이' 출시·'프린세스…' 모바일서 부활 등 레트로 열풍

방송 콘텐츠에서 '응답하라 1994'와 같은 복고풍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게임 콘텐츠에도 레트로 열풍이 일고 있다.

사용자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배경으로 한 작품은 물론 청소년 시절 즐겼던 게임이 리메이크되기도 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게임빌은 지난 4일 군대를 소재로 한 모바일게임 '진짜사나이 for Kakao'를 출시했다.

'육·해·공 국가방위 프로젝트'라는 슬로건을 내건 밀리터리 게임으로 대공포전, 사격전, 잠수함전, 공중전 4종의 미니 게임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 손으로도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조작법과 쉬운 게임성으로 초반부터 대중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부대원과의 점수 합산을 통한 부대 랭킹 시스템, 카카오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개인 랭킹 등 다양한 소셜 그래프가 눈길을 모으고 있고, 피버 타임, 공보 누적, 슈퍼 폭탄 등 다양한 콘텐츠 역시 재미 요소로 꼽힌다.

딸을 예쁘게 키워서 이른바 '1등 신붓감'으로 만드는 PC게임 '프린세스메이커'도 모바일 버전으로 새로 태어난다.

엠게임은 '프린세스메이커 for Kakao'를 곧 공개한다. 원작 시리즈 중 가장 큰 인기를 얻었던 '프린세스메이커2'를 기반으로 하며 SNG적 요소를 가미한 3D 모바일 육성 시뮬레이션 장르다.

18세 딸과 스케줄을 관리하면서 아르바이트, 교육, 세력 훈련 등을 시킨 뒤 취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 3040세대가 원작 게임에 푹 빠진 경험이 있는 만큼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엠게임에 돌파구를 마련해줄 타이틀로 기대를 모은다.

컴투스가 최근 출시해 피두 만에 앱스토어 전체 무료 앱 1위에 오른 '돌아온 액션퍼즐패밀리 for Kakao'도 응답하라 풍의 게임이다.

원작인 '액션퍼즐패밀리'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 피처폰을 쓰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즐겼던 필수 아이템이었다.

'돌아온 액션퍼즐패밀리 for Kakao'는 액션퍼즐패밀리 시리즈 강점인 탄탄한 게임성과 유쾌한 그래픽을 유지하면서도,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조작법과 사용자환경(UI)을 적용해 접근성을 높였다.

특히 유저가 출신 초·중·고교를 직접 선정하고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 대항전에 참가해 동창들과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요소는 유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차상근기자 csk@metroseoul.co.kr

'포코팡' 업데이트…바이포·둥둠 등 추가

인기 모바일 퍼즐게임 '포코팡'이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왔다.

NHN엔터테인먼트(주)는 포코팡 업데이트 단행과 함께 신규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 종지 에서지 오류 현상을 수정했으며 새 동물 캐릭터 '바이포'와 '둥둠' 등 4종의 콘텐츠를 공개했다.

이밖에 포코팡은 6일까지 동물 뽑기 비용을 6000체리에서 5000체리로 할인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체리보너스' 이벤트를 통해 다이아몬드를 체리로 교환할 경우 최대 55%까지 추가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cafe.naver.com/pokopa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연희기자 un.eva@

"넥슨캐시 편의점서 충전하세요" 넥슨은 5일 스마트폰을 이용해 편의점에서 넥슨캐시를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을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전국의 CU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언제나 쉽게 넥슨 캐쉬에 충전할 수 있다. /넥슨 제공

하루 게임 1시간 넘으면 여친 "헤어져"

결혼에 성공하고 싶은 남성 게임 마니아라면 하루 게임 시간을 1시간 내외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미혼남녀 759명(남 366명, 여 393명)을 대상으로 '결혼을 앞둔 애인이 하루 3시간씩 게임을 한다면'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남성 62%는 '계속 만난다'고 응답했지만 여성의 79.9%는 '헤어진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계속 만난다고 답한 이유로는 37.6%가 '게임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취미'를 꼽았다. '나도 게임을 함께 즐기니까'(29.1%), '아직 결혼한 것은 아니니까'(23.5%)란 의견도 많았다.

반면 헤어지겠다는 이유로는 '게임을 하는 자체가 한심해 보이니까'(33.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데이트할 시간을 빼앗기니까'(20.5%), '금전적 시간적 낭비라 생각하니까'(17.4%)를 거론한 사람도 많았다.

허용 가능한 '애인의 하루 평균 게임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29.2%가 '1시간'이라고 답했다. 30분(25.4%), '3시간'(19.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3시간'(28.4%)이라고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1시간'(41%)이라는 답이 절반에 육박했다. /대국경기자 kmlee@

'롤' 입문가이드 영상 공개 온게임넷 김동준씨 해설

리그 오브 레전드 입문자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이 공개됐다.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 및 유통사인 라이엇게임즈는 신규 이용자가 게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입문 가이드 영상을 최근 홈페이지에서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입문 가이드 영상은 초보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안내 정보가 담겨있다. 영상의 해설은 온게임넷 해설위원으로 활약 중인 김동준씨가 맡았다. 약 3분40초 분량으로 제작된 이 영상에는 게임의 장르와 승패 원리, 캐릭터 간 역할 분담, 팀 조합, 지도 활용, 승리 전략 등 게임을 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사항들이 담겨졌다.

권정현 라이엇게임즈 e스포츠커뮤니케이션본부 총괄상무는 "게임 속 다양한 실제 전투 장면과 챔피언들의 생동하는 모습들이 기존 이용자에게도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희기자

총격게임 '카스2 빅시티' 참가자 모집

임요환, 홍진호와 함께하는 총격전이 열린다.

5일 넥슨에 따르면 1인칭 총격게임(FPS)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 2'는 '카스 2 빅시티 임진왜란'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빅시티 임진왜란 이벤트는 7일 서울 강동구 소재 PC방에서 개최되며 프로게이머 출신 임요환과 홍진호가 특별 게스트로 참석해 카운터스트라이크 온라인 2의 대규모 전투 콘텐츠인 '빅시티'로 참가자들과 함께 25대25 대전을 펼칠 예정이다.

경기는 왜군 임요환 팀과 조선군 홍진호 팀 2개 진영으로 나눠어 전투 현장의 주요 거점을 지지하는 점령전 방식으로 열린다. 경기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참여를 원한다면 이벤트 페이지에 참가하고자 하는 팀과 그 이유를 댓글로 적으면 된다. 추첨을 통한 선발 결과는 개별 통지된다.

넥슨은 이번 이벤트 승리팀 전원에게 문화상품권 10만원권을 상품으로 증정한다. 경기 외 현장 이벤트로 사인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csonline2.nex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윤희기자

RIA DAY

12월 12일

오징어버거

~~₩2,300~~ → ₩1,200

AM 10:00 ~ PM 10:00

- 제휴카드, 롯데멤버스카드 할인 제외
- 홈서비스 및 일부점포 제외

한경희뷰티 '스페셜 세일' 31일까지 최대 60% 할인

한경희뷰티가 31일까지 '오 마이 크리스마스 스페셜 세일'을 진행한다.

이 기간 크리스마스 컬렉션과 한경희뷰티의 스테디셀러 제품을 최대 60% 할인하고 구매 고객 전원에게 '에스테틱RX 미백시트' 4매를 증정한다. 이와 함께 4만원 이상 구매 시 '디자이닝 아이 컬렉션'을, 7만원 이상 구매 시 '오앤 립글프리 프리미엄 크림'을 제공한다.

립글레머-립글프리 오토매틱 아티스트 등 크리스마스 컬렉션 4종은 5~6가지 제품을 하나로 묶어 3만9900원 특가에 한정 판매한다.

단일 제품 세일도 파격적이다. 원더스틱은 한 개 구입 시 한 개를 더 주는 1+1 행사를 한정 진행하고, '김민정 립스틱'으로 불리는 립크레용과 아이크레용-블라이너는 각각 9900원에 내놓는다.

/이지은기자

뉴스 & 뉴스

위메프 '산타클라라 이벤트'

● 위메프는 5일 연말을 맞아 클라라가 소비자에게 직접 선물을 배송해주는 '산타 클라라'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타 클라라 이벤트는 위메프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케쳐스 상품을 오는 12일까지 구매 후 위메프 게이스북에 위메프 ID와 함께 댓글을 남기면 한 명을 추첨해 클라라가 직접 13일 선물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선물은 구매한 상품과 별도로 증정되는 럭키박스 형태이며 랜덤 상품 구성으로 발송된다. 신청한 고객뿐 아니라 직장 동료들에게도 선물이 증정된다.

매일유업 3000만달러 수출탑

● 매일유업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제50회 무역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내 유업계 최초로 30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매일유업은 지난 2012년 중국 수출 시장의 조제 분유 수출 증대로 인해 연간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77% 이상 성장하고, 올해는 조제 분유 분야에 중점을 둬 연간 수출 실적이 전년 대비 64% 이상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음료 한잔 '크리스마스의 기적'

런던·파리·코타키나발루 등 무료 항공권 이벤트 잇따라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 휴일을 이용해 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 TV에서 방영중인 '꽃보다 누나'와 '아빠! 어디가?' 등 여행지에서 펼쳐지는 에피소드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특히 해외여행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음료업계에서는 연인 가족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영국 프랑스 등 휴양지 등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엔제리너스커피는 영국항공과 함께 11일까지 '크리스마스를 영국에서 보낸다면' 이벤트를 벌인다. 회사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제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영국에서 보낸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공약을 적어 응모하면 심사위원들이 참신성, 실현 가능성, 흥미성 등을 고려해 우수작을 선정한다.

가장 우수한 공약을 낸 1명에게는 영국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에 해당하는 좌석인 '클럽월드'로 런던을 다녀올 수 있는 왕복 티켓 2장을 제공하며 나머지 우수작 후보 100명에겐 아메리카노 쿠폰을 준다.

와플반트에서는 신메뉴 출시를 기념해 아스타항공과 해외여행 이벤트를 연다. 버블라떼 혹은 1만원 이상 구입한 고객이라면 영수증에 이름과 전화번호, e메일 주소를 적어 15일까지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2명(1인 2매)에게 코타키나발루 3박4일 항공권 및 호텔 숙박권을 제공한다.

카페 드롭탑은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 3종 출시를 기념해 '파리에서 보내는 로맨틱 크리스마스'를 콘셉트로 이벤트를 마련했다. 오는 30일까지 음료를 구매한 후 드롭탑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싶은 선물을 선택해 영수증 하단에 있는 응모번호를 입력하면 프랑스 여행 상품권을 비롯해 드롭탑 크리스마스 시즌 음료 상품권과 시즌 머그컵, 무료 공연 티켓 등을 받을 수 있다.

/정영일기자 email@metroseoul.co.kr

겨울엔 제주 골드키위 5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모델들이 제스프리 제주 골드 키위를 선보이고 있다. 제스프리 제주 골드 키위는 하루 필요량의 1.6배에 달하는 비타민 C와 엽산, 식이섬유, 칼슘 등의 각종 영양소를 다량 함유해 겨울철 건강과 활력 증진에 효과적이다. /연합뉴스

부모님 응원메시지 공모 "사랑합니다" 가장 많아

한국야쿠르트는 지난 9월부터 세 달간 대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 '엄마 아빠 힘내세요' 응원 메시지를 접수한 결과, 전체의 23.1%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5일 밝혔다. 다음으로 '파이팅', '응원합니다' 등 메시지가 전체의 15.6%로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경기 불황 등으로 기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명예퇴직한 50대 이상의 재취업이 늘어나고 있는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거나 효도로 보답하겠다는 메시지도 각각 13.8%에 달했다. /정영일기자

춥다고 내복바람에 '뒹굴뒹굴' 옳지 않아~

스타일도 살려주는 홈웨어 패브릭 소재+플라워 패턴

올겨울 '북극한파'가 예고되면서 벌써부터 난방비 폭탄 걱정이 앞선다. 이번 시즌 난방비는 절약하고 스타일은 살려주는 홈웨어로 월동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

내복 하나만 입어도 체온을 2도가량 올라간다. 특히 요즘처럼 예의한 날씨에는 낮 시간대에 보일러를 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복은 필수다. 여기에 포근한 카디건이나 니트를 걸치고 발까지 포근하게 감싸주는 슬리퍼까지 신으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다.

하지만 홈웨어를 선택할 때 무조건 보온성만 따져선 아이템을 고르면 안 된다. 맨살에 닿는 아이템인 만큼 부드러운 소재인지 통기성은 좋은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패브리아나 캐시미어, 앙고라 등의 소재로 만든 의상은 오랜 시간 입고 있어도 불편하지 않아 홈웨어로 안성맞춤이다.

추운 날씨에 기분까지 우중충해지기 쉬운 겨울에는 스타일도 무시할 수 없다. 따뜻한 소재에 화사한 플라워 패턴이나 컬러감이 더해지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

캐스키드슨 관계자는 "홈웨어의 경우 몸에 딱 붙는 것보단 한 치수 큰 제품을 골라야 활동하기 편안하다"며 "올겨울 따뜻한 소재에 스타일까지 갖춘 홈웨어로 난방비 폭탄을 피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곧 걷힌다더니…더 짙어진 '회색 공포'

서울 첫 초미세먼지 주의보

나흘째 이어진 중국발 스모그 탓에 5일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다.

서울시는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후 3시경에 198㎍/㎥로 치솟았다. 4시를 기준으로 93㎍/㎥를 기록, 2시간 이상 지속되는 주의보 발령 기준을 넘겼다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날 예보를 통해 '보통(81~12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예보는 빗나갔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이동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학생들의 야외 활동을 자제시키라고 긴급 지시하기도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납과 카드뮴 비소처럼 독성을 지닌 중금속이 다량 함유돼 있다"며 "실외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은 닫고 당분간 바깥 나들이를 자제하라"고 조언했다.

마스크없인 못 살아! 5일 오후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악화된 가운데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광화문광장을 걷고 있다. 이날 미세먼지는 예보 등급상 나쁨(120~200㎍/㎥) 수준에 해당하므로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장시간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환경과학원은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중세안이 정답 스크럽제는 금물

클렌징오일·폼 클렌저 효과적

최근 중국발 스모그로 피부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황사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납·카드뮴 같은 다량의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중국발 스모그는 민감한 피부에 치명적이다.

뷰티 전문가들은 철저한 '이중 세안'만이 스모그로 인한 피부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대신 알갱이가 있는 스크럽제 등을 사용하면 자극받은 피부가 더욱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세안하되 모공 속 숨은 노폐물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는 '딥클렌징'이 중요하다.

오일 타입의 클렌징 제품은 자극이 적고 노폐물에 쉽게 유착돼 밀도가 높은 먼지·메이크업 잔여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대신 클렌징 오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마른 손으로 마른 얼굴에 사용해야 한다.

클렌징 오일로 1차 세안을 끝냈다면 폼 클렌저를 사용해 모공 깊숙이 자리한 노폐물을 닦아낼 차례다.

폼 클렌저를 쓸 때는 손바닥에서 미리 충분한 거품을 만든 다음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문지르고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군다.

이와 함께 일주일에 1~2회 정도 블랙헤드 제거와 필링 등으로 피부에 쌓인 각질을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때 역시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다. /박지원기자 pjw@

먼지엔 돼지고기가 최고? 물이나 과일 섭취 늘려야

중국발 미세먼지는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기관지와 폐에 쌓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호흡기를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온 먼지는 1차로 코털에서 걸러지고 2차로 기관지 섬모에서 걸러지는데 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고 폐포에 흡착된다. 기관지나 폐에 쌓인 미세먼지는 코나 기도 점막에 자극을 줘 비염, 중이염, 후두염증, 기관지염, 천식을 유발시킨다. 게다가 미세먼지의 독성 물질이 모세혈관에 유입돼 혈액의 점도가 증가하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혈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초미세먼지가 고농도로 상승할 때는 어르신, 어린이, 호흡기질환 및 심혈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할 때는 황사마스크, 긴소매 의복 등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잠시간 외출 시에는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 시스템인 에어코리아에서 실시간 대기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마스크는 제품 포장에 '황사방지용'과 '의약외품'이라고 표기된 마스크를 구입해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돼지고기의 지방이 입과 기관지에 붙은 미세먼지를 씻어준다는 속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지방의 함량이 높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지용성 유해물질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아직까지 미세먼지에 관한 돼지고기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심윤수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유해 물질을 빨리 배출할 수 있다"며 "섬유질이 많은 잡곡밥이나 과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유재훈기자 hoonj38@metroseoul.co.kr

황사 마스크 등 판매 불티…일반 마스크는 쓰나마나

중국에서 미세먼지 유입이 계속되면서 때아닌 한겨울에 황사 관련 용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

지난달부터 계속된 중국발 스모그로 인해 일반적으로 봄철 판매가 급격히 늘어나는 미세먼지 상품 매출이 최대 5배를 넘기며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롯데마트의 경우 이달 들어 사흘간 마스크 판매가 동기 대비 153.5% 늘었고, 핸드워시 제품류도 2배 넘는 138.3% 증가했다. 마스크의 경우 지난달 매출도 98.3% 상승했다.

이마트에서도 최근 1주일간 황사마스크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6.1% 증가했다.

방진용 마스크 매출 역시 156.6% 상승했다. 중국발 스모그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따지면 현재까지 방진 전용 마스크 판매는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2000개 넘게 팔리기도 했다.

중국발 스모그 공습 에 손세정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연합뉴스

집 안에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전자기기들의 매출도 덩달아 상승했다.

관경희생활과학에 따르면 이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싸이클론 청소기'의 경우 지난달부터 이달 3일까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급증했고, 공기청정기 매출 역시 60.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으로 이 회사의 경우 스팀청소기와 침구청소기는 매년 황사철인 초봄과 환기가 어려운 겨울에 연 매출의 70% 이상이 집중된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지난부터 심해진 중국발 미세먼지 공포로 고객센터와 공식 카페로 소비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번주 스팀청소기와 침구청소기의 매출이 전주보다 2배 이상 성장했다는 것이다.

이상재 롯데마트 일상생활 상품기획자는 "중국 스모그가 심화됨에 따라 건강에 대비한 상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마스크 상품을 기존보다 2.5배가량 많이 확보하고 매장 진열 면적도 확대해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정혜인기자 oen@

metro entertainment

'설국열차'와 '관상'으로 올 한 해에만 1850만 관객을 동원한 송강호(46)의 관객몰이는 끝나지 않았다. 2013년을 10여 일 남겨두고 마지막 히든카드를 꺼내든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송우석 변호사로 출연한 '변호인'(18일 개봉)은 작품 선택부터 완성되기까지 한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치열하게 매달린 영화다.

'노무현'을 감히 연기한 '송강호'

영화 '변호인' 송강호

내 청춘의 고향인 80년대
그 시대를 열심히 살다간
대한민국 보통 국민 얘기

그분 실제로 두번 만나봐
헌정도 미화도 아닌 영화
그 가치관 열정에 경의를

–올 하반기에만 세 번째 개봉작인데 기분이 어떤가

올해같이 행복한 해가 있으면 우울할 때도 있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좋아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다. 18년 동안 그런 마음으로 연기해왔다. 관객들은 '올해 송강호가 왜 이리 많이 나오나' 할지 모르지만 장르와 캐릭터가 모두 달라 다행이다. 과거와 미래, 현대까지 시공간의 차이도 있어 그렇게 질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 작품은 홍보도 더 열정적이면서 조심스러운 것 같다

정치적으로 편견을 가지기도 하고 "왜 노무현 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고 그분 이라고만 표현하느냐"며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계획하거나 약속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 헌정이나 미화를 위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지 않았으면 하는 뜻이다. 물론 모티브를 가져왔지만 그 시대를 열정적으로 산 인물 자체에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뭔가

영화가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의 말처럼 만들어졌다면 나도 걱정할 텐데 막상 본다면 영화의 지향점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거다.

–출연 제의를 한 차례 고사하고 망설인 고민한 이유는 뭔가

그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감히 일개 배우가 제대로 표현할 능력이 있을까 고민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이 궁금하다

배우 송강호를 떠나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며, 가장 상식적인 국민 중 하나다. 1980년대에 보여준 이 분의 삶의 태도나 가치관, 치열하게 살아간 열정에는 다른 아니라 누구나 존경심을 가질 것이다. 단 연기할 때는 철저하게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을 직접 본 적이 있나

두 차례 만났다. 2003년에 모범 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을 때 수십 명 중 한 명으로 멀리서 다과를 한 적이 있다. 2007년 '밀양' 이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고 왔을 때 영화 관계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영화를 보면 이따금 노 전 대통령과 성대모사처럼 들리는 장면도 있다

모사를 위해 연기한 부분은 없다. 내가 캐스팅된 첫째 이유가 부산 출신이고 그 당시의 지역적·인물적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할 것 같아서였다. 그렇다 보니 비슷하게 들릴 수 있었을 것이다.

–1980년대는 어떻게 보냈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연극 무대라는 5가지 키워드가 모두 80년대에 포함된다. 그만큼 특별했다.

–법정 신을 비롯해 대사가 정말 많다

'관상' 때 대사가 너무 많아 힘들었다. 그 뒤에 온 '변호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사량이 있을 줄 몰랐다. 지금까지 했던 작품 중 가장 대사가 많은 영화다. 후반부 다섯 차례의 법정 신은 정말 철저히 준비됐다. 자칫 지겨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다섯 차례 모두 키포인트를 달리하며 리듬을 타듯 연기했다. 경기도 양수리 세트장에서 열흘 동안 촬영했는데 5일 전 세트장에 미리 들어가 연습했다. 미리 현장에 가서 연습한 건 영화 일을 하면서 처음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는 뭔가

(자 공판 장면인데 고문 경찰관인 차동영(곽도원)을 향해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라고 하는 대사다. 또 헌법 조항을 외우고 연기하다 보니 삶의 이상향이 담긴 헌법의 언어가 참 아름답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유순호 기자 euno@metroseoul.co.kr
사진/박동희(가운데) 디자인/박은지

소녀시대 "아이 갓 어 파이브"

타임지 '올해의 노래' 5위에 선정… 사일러스·보위 등 팝스타 눌러

걸그룹 소녀시대(사진)가 유튜브 뮤직어워드에 이어 또 한 번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 타임지는 5일 '올해의 노래 톱 10'을 발표하고 5위에 소녀시대의 노래 '아이 갓 어 보이'를 선정했다.

타임지는 아시아 가수 중 유일하게 순위에 든 소녀시대에 대해 "한국의 9인조 걸그룹 소녀시대는 효과적인 후크송을 구사하며 아시아의 주요 현상이 됐다"고 극찬했다.

소녀시대는 마일리 사일러스, 데이비드 보위 등 쟁쟁한 팝스타들을 모두 제치고 5위에 올라섰다. 마일리 사일러스의 '위 캔 스톱'은 7위에, 데이비드 보위의 '러브 이즈 로스트'는 8위에 올랐다. '올해의 노래 톱 10' 1위에는 다프트 펑크의 '겟 러키'가 선정됐고, 2위는 하임의 '더 와이어', 3위는 비욘세의 '컨트롤'이 차지했다.

소녀시대는 타임지 '올해의 노래' 외에도 미국 음악 전문 케이블 FUSE TV가 선정한 '2013년 가장 기대되는 앨범 44'에 비욘세, 머라이어 캐리,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리기도 했으며, 제1회 유튜브 뮤직 어워드의 '올해의 뮤직비디오'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소녀시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소녀시대의 글로벌한 인기와 영향력을 입증한 사례"라며 "글로벌 미디어의 성장으로 세계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면 직접 진출하지 않아도 해외 대규모 시장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녀시대는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SM타운위크' 걸스제너레이션 '메리퀸 판타지'를 개최한다.

/정성준기자 ysw@metroseoul.co.kr

엑소 '12월의 기적' 뮤비 하루만에 130만건 조회

남성그룹 엑소(EXO)의 신곡 '12월의 기적' 뮤직비디오가 공개와 동시에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엑소의 공식 홈페이지와 SM타운의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된 뮤직비디오가 폭발적인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채널에 등록된 뮤직비디오는 공개 12시간 만에 130만 조회 수를 넘었다. 한국어 버전이 90만 건 이상, 중국어 버전이 40만 건 이상을 기록했다.

이 뮤직비디오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후 그리움에 안타까워하는 노래 가사에 맞춰 제작됐다. 떠나간 연인을 그리워하며 전할 수 없는 선물을 준비하는 등 엑소 멤버들의 아련하면서도 감성적인 모습을 감각적인 영상에 담았다. 멤버들의 차분하면서도 절제된 감정 연기를 볼 수 있다.

신곡은 5일 각종 음악 사이트를 통해 선공개되며 겨울 스페셜 앨범은 9일 발매된다.

한편 엑소는 6일 KBS '뮤직뱅크', 7일 MBC '쇼! 음악중심', 8일 SBS '인기가요' 등 음악 프로그램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인다.

/석진환기자 [illegible]

'亞로커' 김재중 팔도 투어

첫 전국공연 돌입

로커로 아시아를 누빈 JYJ의 김재중(사진)이 처음으로 국내 전국투어에 나선다.

솔로 정규 1집 발매 기념으로 아시아투어를 진행 중인 김재중은 내년 1월 전국투어 '2014 김재중 1st 앨범 아시아 투어 콘서트'를 진행한다. 4일 부산 벡스코를 시작으로 11일 광주 염주체육관, 18일 대구 엑스코, 25~26일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공연한다.

김재중은 10월 29일 첫 솔로 정규앨범 'WWW: 후 웬 와이'를 발표하고 지난달 2~3일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요코하마, 대만 타이베이에서 콘서트를 개최했다. 그는 록을 기반으로 소프트록, 브릿팝,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담은 1집 수록곡들로 100% 라이브 무대를 선보여 JYJ 음악과 다른 매력을 선사했다.

지난 서울 콘서트의 티켓 1만4000장은 예매 시작 15분 만에 모두 팔려나갔다. 1월 첫 솔로 공연 티켓 예매 때는 인터파크 사상 해외 IP 동시 접속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하며 1만6000장이 순식간에 매진됐다. 중국 난징 콘서트는 현지 팬들의 요청으로 1회를 추가해 7~8일 개최된다.

/유순호기자 sune@

中 경찰도 '빠빠빠'… 패러디영상 176만건 클릭

걸그룹 크레용팝의 '빠빠빠' 인기가 중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쿠에는 중국 교통경찰의 '빠빠빠' 패러디 안전 캠페인 영상이 게재됐다. '좌산 유쌍 교통댄스 빠빠빠'라는 제목을 단 이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 수 176만 건을 넘어서며 인기를 끌고 있다.

영상 속 중국 경찰들은 '직렬 5기통 춤'을 그대로 재현했다. 크레용팝의 트레이드마크인 졸업 착용도 잊지 않았다. 크레용팝의 노래 소리에 맞춰 춤을 추면서 중국어로 교통안전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크레용팝은 4일 겨울송 '꾸리스마스'로 컴백했다.

/정성준기자

star bag

日 '유비코이' 이벤트 달궈

빅뱅 **승리**가 일본 드라마 '유비코이-그대에게 보내는 메시지'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4일 공개된 이 드라마에서 한국인 유학생 한승효를 맡아 연기자로 변신한 그는 4일 도쿄 도카이대학 캠퍼스에서 열린 드라마 이벤트에 참여해 팬들을 만났다. 이벤트에서 직접 작사·작곡한 드라마 주제곡 '소라니 이가우 오모이(하늘에 그리는 생각)'를 깜짝 공연해 팬들을 열광케 했다.

새 예능 '4남1녀' 출연 확정

걸그룹 **김민종**, 사장 김재원이 내년 1월 첫 방송될 새 예능 프로그램 '4남 1녀'(가제)에 출연한다.

5일 MBC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출연을 확정지었으며, 첫 번째 여자 게스트로는 이하늬가 출연한다. 이 프로그램은 출연자들이 남매로 뭉쳐 시골에 있는 외로운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속가능 생활하며 가족의 의미를 보여준다는 콘셉트의 가족 예능이다.

MBC '두시 만세' 첫 DJ 도전

개그우먼 **정경미**가 MBC 표준FM '두시만세' 로 데뷔 이후 첫 DJ에 도전한다.

소속사는 5일 "정경미가 개그맨 박준형과 함께 기존 DJ인 윤정수·이유진의 바통을 이어받아 9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경미는 소속사를 통해 "꼭 한번 DJ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는데 기회를 얻게 돼 굉장히 설레고 기쁘다"면서 "앞으로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방송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류승룡과 같은 소속사 옮겨

배우 **오정세**가 소속사를 옮겨 류승룡·문정희 등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연예기획사 프레인TPC는 오정세와 최근 전속계약을 했다고 5일 전했다. 데뷔 17년차의 오정세는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넘나들며 인상 깊은 인기를 펼쳤다. 최근 영화 '남자사용설명서', '히어로' 등을 통해 주연배우로 발돋움했다. 현재 영화 '레드카펫', '하이힙'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디너쇼의 계절

배테랑 이미자·조영남·주현미·심수봉 공연 줄이어

크리스마스 시즌에 베테랑 가수들의 디너쇼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진다.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는 21~22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2013 이미자 크리스마스 디너쇼'를 개최한다. 그는 55년간의 음악 인생을 돌아보며 '동백아가씨' '기러기 아빠' '섬마을 선생님' '흑산도 아가씨' '열아홉 순정' 등 숱한 히트곡을 선사한다. 김동건 아나운서가 특별 진행을 맡아 구수한 입담을 들려준다.

공연기획사 측은 "모두 어렵고 힘들 때 이미자 노래를 듣고 살아온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세월이 지나 디너쇼 공연장에서 그때 그 노래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다. 티켓 구매층 대부분이 부모님을 위해 티켓을 구매하는 30~40대"라고 밝혔다.

조영남은 24·25일 63컨벤션센터에서 '2013 조영남 크리스마스 디너쇼'를 연다. 이번 공연에는 조영남만이 보여줄 수 있는 클래식과 팝송·가요·트로트 등 다채로운 무대를 꾸민다. 데뷔곡 '딜라일라'를 비롯해 '화개장터' '제비' 등 히트곡과 1970년대 쎄시봉 친구(송창식·윤형주·김세환)들과 함께 부르던 추억의 명곡을 들려준다.

또 크리스마스 맞춤형 디너쇼로 자신이 직접 편곡한 캐럴을 부르며, 8명의 성악가로 구성된 특별 게스트와 호흡을 맞춘다.

올해 전국투어와 어버이날 디너쇼에서 팔리어 매진을 기록한 주현미(아래 사진)는 24~25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 '2013 주현미의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의 공연에서 그는 '짝사랑' '잠깐만' '신사동 그 사람' '또 만났네' 등 숱한 히트곡들과 팔색조 같은 매력이 돋보이는 무대를 선보인다.

재즈밴드 프렐류드, 힙합 뮤지션 조PD, 록밴드 국카스텐, 걸그룹 소녀시대의 서현과 다양한 작업을 시도했던 주현미는 이번 공연에서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부른다.

심수봉(위)은 25일과 31일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2013 심수봉 디너쇼-사랑 그리고 설레임'을 개최한다.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그때 그 사람' '사랑밖에 난 몰라' '백만 송이 장미' '미워요' '여자이니까' 등의 히트곡을 트로트·재즈·포크·국악·발라드 등으로 재편곡해 들려준다. /유순호기자

제임스 블레이크 내년 1월 첫 단독 내한공연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제임스 블레이크(사진)가 국내 첫 단독 공연을 연다.

공연기획사 에스컴이엔티는 "제임스 블레이크가 내년 1월 19일 광진구 광장동 유니클로악스에서 내한공연을 연다"며 "2012년 지산밸리록페스티벌 헤드라이너 이후 2년 만의 내한이다"고 5일 전했다.

블레이크는 2011년 자신의 이름을 딴 데뷔 앨범 '제임스 블레이크'와 올해 두 번째 앨범 '오버그로운'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뮤지션이다. 덥스텝을 기반으로 클래식·R&B·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그는 2011년 'BBC 사운드 오브 2011', 올해 10월에는 '2013 머큐리 프라이즈 올해의 앨범' 등을 수상했다. /정성웅기자

연말 공연가를 달굴 힙합 스타 다이나믹듀오(왼쪽 위)와 산이. 작은 사진은 에픽하이 위·정준하와 데프콘이

겨울 달구는 "헤이~요!"

21·24·28일 3색 힙합파티… '화끈한 무대' 경쟁 예고

티켓 전쟁이 불붙은 연말 공연가에 힙합 파티가 대거 몰려온다.

쿼한 뮤지션들의 합동 공연과 페스티벌 형식의 올 나이트 파티 등 독특한 컬러를 시도한 파티들은 평소에는 쉽게 만날 수 없는 희소성이 더해져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21일 광장동 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리는 '힙 힙한 파티'에는 다양한 힙합 가수들이 대거 참여한다. 한자리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에픽하이·그레이·M.I.B 등 아티스트의 공연이 펼쳐진다. 그룹 UV의 멤버 뮤지를 비롯해 DJ 크루 데드엔드·무브먼트 소속 DJ 코난과 DJ 스무드, DJ 킴벅, DJ 앤도우 등 일렉트로닉·힙합계에서 명성을 떨치는 DJ들이 대거 출연해 파티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스페셜 게스트로 정준하와 데프콘이가 참여한다. 공연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410분간 밤새 진행되고 호텔이라는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열리는 만큼 독특한 드레스 코드 및 다양한 재미 요소를 마련했다.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생각한다면 24일 오후 7·11시 2회에 걸쳐 잠실 롯데호텔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2013 더 크라이에티 아이바마스'에 참여하면 된다. 이날 콘서트에는 올 한 해 음악뿐 아니라 예능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데뷔 14년차 힙합 듀오 다이나믹듀오를 비롯해 최근 가요계를 떠들썩하게 한 프라이머리, 올해 최고의 힙합 신예 자이언티와 리듬파워 등 아메바컬쳐 소속 가수들이 출연한다. 스탠딩 공연이다.

버벌진트와 범키, 산이, 아웃사이더는 28일 세종대 대양홀에서 열리는 '2013 오버 더 필'에서 관객과 소통한다. 올해 버벌진트는 '시작이 좋아' '비범벅' 등 여러 장의 싱글을 히트시키며 음원 강자로 자리매김했다. 산이는 '아는 사람 얘기'와 '어디서 잤어'를 연이어 히트시켰고, 지난해 제대한 아웃사이더는 KBS2 '불후의 명곡' 등에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공연은 28일 오후 3시30분·7시30분 두 차례 열린다.

/장성윤기자 yoo@metroseoul.co.kr

이승철, 너의 목소리가 들려…

연말 달구는 '라이브 황제'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사진)이 올해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환상의 보컬로 물들인다.

이승철은 올해 여름투어 '비지 보이스', 가을투어 '러브 레인'에 이어 '2013 크리스마스 콘서트 캐롤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전국투어를 진행한다.

매년 전국투어에서 압도적인 티켓 파워를 떨쳐온 이승철은 이번 공연에서 히트곡들과 캐럴은 물론 올해 발표한 정규 11집 수록곡들을 들려준다. 또 스페셜 이벤트를 마련해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는 직접 티켓 추첨을 통해 2014년 새해 이승철과 개별 만찬을 할 수 있는 행운의 주인공을 뽑을 예정이나, 엠넷 '슈퍼스타K 5'로 인연을 맺은 네이브로가 게스트로 출연해 캐럴 무대로 방송 이후 처음으로 팬들을 찾아간다.

1일 경북 경주에서 시작된 공연은 7일 부산, 14일 인천, 20~22·24일 서울, 31일 대구에서 차례대로 열린다. /유순호기자 suno@

여배우 보아 '좌정재 우하균'

액션영화 '빅매치' 통해 국내 스크린 데뷔 확정

가수 보아(사진)가 영화 '빅매치'로 국내 스크린에 데뷔한다.

9일 제작사에 따르면 보아는 속내를 알 수 없는 포커페이스로 상대를 긴장하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여인 수경 역으로 최근 출연을 확정했다.

앞서 할리우드 데뷔작이자 첫 영화인 '메이크 유어 무브 3D'와 9일 종영한 드라마 데뷔작 KBS2 2부작 '연애를 기대해'를 통해 연기자로서 첫발을 뗀 그는 국내 스크린 데뷔작인 이번 작품을 통해 본격적인 연기 행보를 시작한다. 영화의 홍일점으로 나서 강도 높은 액션도 선보일 예정이다.

8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에서 보아의 연기에 임하는 진지한 태도와 진솔함에 매료된 영화 제작진이 미모를 가진 두 캐릭터에 대한 깊은 이해력과 남다른 감수성은 지닌 보아가 수경 역에 적격이라고 판단해 캐스팅했다는 후문이다.

이 영화는 대한민국 상위 0.1%를 위한 게임을 만든 설계자와 형을 구하기 위해 맨몸으로 게임에 뛰어든 남자의 대결을 그린 액션 영화다.

이정재와 신하균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며 현재 인기 속에 방영 중인 tvN '응답하라 1994' 어쇄(?) 역으로 출연 중인 손호준을 비롯해 이성민·박두식 등이 조연으로 합류한다. /탁진현기자

12월 1주 엠카운트다운 TOP 10 순위			
1	2NE1	그리워해요	
2	효린	너 밖에 몰라	NEW
3	miss A	Hush	▼1
4	다비치	편지	▼1
5	트러블메이커	내일은 없어	–
6	허각	향기만 남아	▲1
7	선미	미별 식히(?)	▲4
8	이적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4
9	VIXX	저주 인형	NEW
10	FT ISLAND	미치도록	▼4

오케스트라 만난 '집으로 가는 길'

9일 금난새 지휘 시네마 콘서트 … 영화 테마곡 등 선사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이 9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오케스트라 시네마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에서 금난새(오른쪽 사진)의 지휘 아래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집으로 가는 길'의 테마곡을 비롯한 대중에게 친숙한 클래식 음악과 연말에 어울리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들려준다.

방은진 감독과 주연배우인 전도연(왼쪽) 고수, 아역배우 강지우가 참석해 영화에 관한 뒷얘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영화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전하는 '센드 유어 러브' 이벤트 참여자 중 2명을 선정해 전도연, 고수가 사연을 소개해주고 편지를 전달해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집으로 가는 길'은 프랑스 오를리공항에서 마약범으로 오인돼 마르티니크섬 감옥에 수감된 평범한 주부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로 11일 개봉된다. /유순호기자 suno@

워커, 사고당시 화재 탓 사망

불의의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폴 워커(사진)의 사망 원인이 화재 때문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소는 워커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 로저 로다스를 부검한 결과, 워커가 사고 당시 살아있었으나 사고의 충격과 함께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4일 밝혔다. 화재로 인해 시신은 불에 심하게 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전해졌다.

워커는 지난달 30일 로다스가 운전하는 포르쉐 GT를 조수석에서 타고 가다가 로스앤젤레스 북부 산타클라리타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콘크리트 기둥과 나무에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차량은 불길에 휩싸이면서 폭발했다.

한편 워커는 2001년부터 영화 '분노의 질주' 시리즈에 브라이언 오코너 역으로 출연해 스타덤에 올랐다. 내년 여름 개봉 예정인 이 시리즈의 7편에도 출연할 예정이었다. /탁진현기자

여도둑이 된 내 첫사랑

프로파일러 男의 두번째 연애소동… 주원·김아중 매력 가득

film review

■캐치미

김아중·주원 주연의 영화 '캐치미'는 연말에 연인들이 보기에 알맞은 로맨틱코미디물이다.

촉망받는 프로파일러 이호태(주원)가 10년 전 첫사랑이었지만 이제는 전설의 대도가 된 윤진숙(김아중)을 우연히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작품이다. 이호태는 윤진숙을 검거해야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감정 때문에 도피를 돕는 처지가 된다.

경찰과 도둑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범죄극의 성격을 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첫사랑과의 재회에 초점을 맞춘 풋풋한 사랑 이야기다. '자칫 진부할 수 있는 경찰과 범죄자의 사랑에 10년 전 만난 첫사랑이 도둑이라면?' 이라는 상상을 가미해 색다른 로맨틱코미디를 만들었다.

그러나 짜임새 있게 잘 만든 영화 혹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영화를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 있다. 설정은 나쁘지 않으나 세부 상황에 대해 어설프게 묘사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종종 눈에 띈다.

이호태가 인형 탈을 쓰고 검거의 위기에 처한 윤진숙을 달아나게 돕는 장면은 유치하고, 윤진숙의 어설픈 요리로 인해 이호태의 바지 중요 부위에 불이 옮겨붙는 장면은 웃기려고 작정한 신 같은데 식상해서 웃음이 나지 않는다.

이런 영화를 십분 살려내는 건 김아중과 주원의 매력이다.

김아중은 첫사랑의 느낌을 간직하면서도 도발적이고 능청스러운 면모를 지닌 배역을 여자가 봐도 사랑스럽게 연기해 '로맨틱코미디 퀸'으로서의 면모를 뽐낸다. 전작 '미녀는 괴로워' '나의 PS 파트너' 등에서 보여준 김아중 특유의 매력이 이번에도 잘 드러난다.

특히 이번에는 몸매가 완전히 드러나는 보디슈트를 입고 와이어 액션을 펼쳐 '도둑들'의 전지현 못지않게 섹시한 도둑의 매력을 뽐낸다.

드라마 '각시탈' '굿 닥터' 등에서 연기력을 뽐내며 자타가 인정하는 '대세남'이 된 주원은 첫 스크린 주연작인 만큼 배역에 완전히 녹아든 모습은 아니지만 매력만큼은 제대로 발산했다. 윤진숙에게 들려주고자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를 열창하는 모습은 여성 관객의 마음까지 뺏기에 충분하다. 19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더욱 애절해진 연아

첫선 보인 새 쇼트프로그램 감정연기·점프 완벽…오늘 '소치올림픽 리허설'

'피겨 여왕' 김연아(23)의 올림픽 2연패 프로젝트가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실전 점검을 위해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에 출전한 김연아는 5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돔 스포르토바 빙상장에서 열린 첫 공식 연습에서 쇼트 프로그램인 '어릿광대를 보내주오'를 공개했다.

김연아는 올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새 프로그램을 처음 선보이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오른발 부상으로 실전을 치르지 못했다.

'어릿광대를 보내주오'는 뮤지컬 '리틀 나이트 뮤직'에 삽입된 곡으로 화려함을 좇아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중년이 된 여배우가 과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자에게 인생을 맡기기로 결심하고 고백했으나 거절당한 후 부르는 곡이다.

쇼트 프로그램에서 강렬한 이미지를 주로 보여왔던 김연아는 아픈 사랑의 감정과 지나간 청춘의 그리움 등을 하나의 스토리에 맞춰 극적으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긴 팔과 다리를 우아하게 흔들어 깊은 표정과 감정으로 2분50초를 가득 채웠다.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술적인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처음 시도하고 트리플 플립과 플라잉 카멜 스핀으로 전반부를 마무리했다. 후반부에서는 이너바우어에 이은 더블 악셀 점프를 선보였다.

김연아는 링크를 넓게 사용하며 다양한 움직임과 표현으로 감정을 전하는 스텝 시퀀스를 마무리한 뒤 체인지풋 콤비네이션 스핀을 돌고 우아하게 양팔을 앞으로 뻗으며 연기를 마무리했다.

훈련 도중 오른발 발등께에 피로가 쌓여 제대로 훈련을 하지도 못했던 김연아는 이날 훈련에서 대부분의 점프를 깨끗하게 뛰어 우려를 씻어냈다.

더블 악셀이나 트리플 살코, 트리플 플립 등 단독 점프부터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 더블 루프-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등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다양한 점프를 안정적으로 소화했다.

김연아는 두 번째 공식 연습에서 프리스케이팅 곡인 '아디오스 노니노'를 처음 공개하고 6일 쇼트 프로그램과 7일 프리스케이팅에 출전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표정이 살아있네!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에 출전하는 김연아가 5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돔 스포르토바 빙상장에서 새 쇼트 프로그램을 최초 공개하며 공식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8억엔? 가우뚱한 대호

日언론 "소프트뱅크와 합의"

'빅보이' 이대호(31·사진)가 소프트뱅크 호크스 입단 초읽기에 들어갔다.

일본 스포니치아넥스는 5일 "이대호가 소프트뱅크와 2년 8억 엔(약 83억원)에 입단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은 자유계약선수(FA) 이대호의 종착지를 소프트뱅크 호크스로 보고 있다. 스포니치아넥스는 "소프트뱅크가 이대호와 제이슨 스탠드리지, 브라이언 울프, 데니스 사파테 등 4명의 외국인 선수와 입단 협상을 펼쳤다. 계약 성사 단계에 이르렀으며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대호 측은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지만 일본 언론은 이대호의 소프트뱅크행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그러나 이날 스포니치가 확정 금액으로 밝힌 2년 8억 엔은 당초 일본 언론이 예상한 금액보다 낮다. 그동안 일본 언론은 이대호가 오릭스 버팔로스의 3년 12억 엔(약 124억원) 제안을 거절하자 "이대호는 2년 10억 엔, 3년 15억 엔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포니치가 공개한 금액이 계약금이나 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스포니치아넥스는 "소프트뱅크가 막강한 자금력을 뽐내고 있다. 곧 공식 발표가 나올 것이다"고 전했다. /정용환기자

박인비 '올해의 女선수' 8위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미국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꼽은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선수 8위에 올랐다. ESPN은 박인비가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6승을 올리는 등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며 그를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여자 골퍼로 선정했다고 5일 보도했다. /정용환기자

프로농구 전적 5일

모비스	18	25	11	12	66
오리온스	9	14	21	12	56
동부	16	16	24	16	77
KCC	17	10	32	14	73
신한은행	13	13	29	20	75
KDB생명	14	20	16	16	71

프로배구 전적 5일

러시앤캐시	3	1	LIG손보

월드컵 운명의 조추첨…브라질 '약속의 땅' 될까

2014 브라질 월드컵 조 추첨 …… 바이아주의 휴양도시 코스타도사우이페에서 열리는 조 추첨식에는 출전국 감독을 비롯한 전 세계 축구 관계자와 2000여 명의 취재진이 참가하며, 추첨식은 200여 국가에 생중계된다. /AFP 연합뉴스

내년 F1 한국대회 무산…전남도 "2015년 대회 다시 신청"

대회 개최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포뮬러원(F1) 코리아그랑프리(GP) 일정이 내년도 F1 공식 일정에서 제외됐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제자동차연맹(FIA) 산하 세계모터스포츠평의회(WMSC)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2014년 F1 캘린더에서 코리아그랑프리를 제외했다.

대회 탈락은 전남도 산하 F1조직위의 개최권료 추가 인하 요구에 대해 대회 운영사인 포뮬러원매니지먼트(FOM) 측의 거부가 원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F1조직위는 재정난을 이유로 지난해 4370만 달러였던 개최권료를 올해 그 40% 수준인 2700만 달러로 깎은 데 이어 내년에는 2000만 달러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전남도는 내년 FOM과 재협상을 통해 1년이나 1년 반을 쉰 뒤 2015년 4월이나 10월 개최한다는 복안이며, FOM이 협상에 제대로 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10년 첫 대회를 치른 F1대회는 4년간 191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유순호기자

급격한 체중 증가 허리디스크 부른다

복부에 지방 과도하게 축적되면 몸의 중심 앞으로…요추·디스크 압박
꾸준히 보존치료 받았는데도 통증 지속되면 시술이나 수술 고려해야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사는 강보(34)씨는 출산 후 과도한 다이어트로 단기간에 10kg 이상을 감량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그녀는 목표를 달성했다는 성취감도 잠시 갑자기 찾아온 폭식증으로 감량 전 몸무게보다 9kg 이상 체중이 증가했다. 즉 체중을 감량한 지 한 달 만에 19kg 이상 살이 쪘다.

문제는 폭식과 운동 부족으로 복부비만 살이 집중된 그녀에게 어느 순간부터 허리 통증이 찾아왔다는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녀의 허리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거동까지 힘든 상태에 이르렀다. 그녀는 남편의 권유로 근처 병원을 찾았고 자기공명영상(MRI)을 통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요추간판탈출증'(이하 '허리디스크')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복부 지방, 요추와 디스크 압박

복부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몸의 중심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쏠리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허리를 구부정하게 한 자세가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데 이런 자세는 곡선이 돼야 할 요추를 직선 또는 등 쪽으로 구부러지게 만들며 이는 자연스럽게 요추와 디스크를 압박하게 된다.

지속적인 압박과 자극은 추간판의 가장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에 균열과 파열을 야기한다. 이로 인해 추간판의 수핵이 더 이상 섬유륜에 쌓여있지 못하고 균열 사이로 비집고 나오는 돌출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리디스크'인 것이다.

민혜식 서울(강동) 튼튼병원장이 환자의 꼬리뼈 사이로 1mm의 내시경과 레이저를 삽입해 미니레이저디스크 시술을 집도하고 있다.

허리디스크는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 찾을 수 있지만 MRI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허리디스크 환자의 80~90%는 수술적 치료가 아닌 물리치료와 운동치료 등과 같은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강씨처럼 복부 지방, 즉 비만으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다면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한 체중 조절로도 허리디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꾸준한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이나 하반신이 저릴 경우에는 시술 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봐야 한다.

최근에는 수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미세(미니)레이저디스크 시술이 환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미세레이저디스크 시술은 직경 3mm의 기느다란 관에 1mm의 초소형 내시경과 레이저를 장착한 후 환자의 꼬리뼈 부분으로 삽입해 초소형 내시경을 통해 모니터로 디스크 부분을 확인하며 수핵 돌출 부분을 정확하게 레이저로 제거하는 시술이다. 이 시술은 국소마취하에 내시경과 방사선 투시장치 등으로 실시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환자와 집도의가 시술 중 직접 대화를 하며 진행된다.

환자는 시술 하루 만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으며 피부 절개 없이 시술이 가능하다. 또 시술 시간도 30분 내외로 짧은 편이라 허리디스크 외에도 디스크 파열, 급성 만성 요통, 척추 수술 후 나타난 통증 증후군 등 요추질환에 효과적이다. 더욱이 고령의 나이로 인해 전신마취가 부담스럽거나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내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부담 없이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일상생활이 완전히 어려울 정도의 고통과 하지 마비, 대소변 장애 등 신경 이상이 동반되면 디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최근까지 환자들은 수술의 부담을 가졌지만 이제는 미세현미경과 내시경을 이용한 최소침습 수술을 통해 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

민혜식 서울(강동) 튼튼병원장은 "최근 급격한 체중 증가와 함께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대부분이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진단받는데 이럴 경우 보존적 치료를 통한 체중 감량과 복부 근력 강화 등의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보존적 치료를 12주 넘게 받아도 극심한 요통과 하반신이 저리는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시술이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재용기자

가족 찾으세요? 시청에 가보세요

'가족가치 공감 사진' 공모전 14일까지 수상작 30편 전시

서울시는 오는 14일까지 신청사 1층 전시 공간에서 '가족가치 공감 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지난 9월 한 달간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우리 가족이 전해주는 행복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1347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그중 대학교수 등 사진 관련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 입선 20편 등 총 30편의 당선작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김성진씨의 '가족'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랜 병원 생활을 하다 퇴원한 막내의 첫 외출을 기념해 어머니와 네 남매를 촬영한 사진이다. 막내를 꼼꼼하게 예뻐하는 남매의 따뜻한 사랑이 막내의 아픔을 씻은 듯이 낫게 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또 우수상을 수상한 김영관씨는 '놀라운 선물'을 통해 아이의 첫 울음과 갓 출산한 산모의 감격적인 눈물이 주는 생명 탄생의 감동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3대 가족' '작은 동이의 식사시간' '스트레칭으로 가족의 사랑을 늘려요' 등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공모전을 진행했다"며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족사진 공모전이 더욱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3040 남성 '어깨충돌증후군' 주의보

심할 경우 근육파열로 발전 조속히 치료하면 효과 빨라

우리 몸 중에서 어깨는 운동 범위가 가장 넓고 운동량도 많아 다른 부위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빨리 찾아온다.

어깨관절이 건강할 때는 견봉(어깨의 뾰족한 부분)과 어깨 근육 사이의 여유가 충분하지만 반복적으로 어깨를 사용하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견봉과 어깨 근육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이런 마찰로 인해 어깨 근육에 염증이 생긴다. 바로 '어깨충돌증후군'이다.

어깨충돌증후군은 30~40대 젊은층, 특히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주로 손을 어깨 위에서 쓰는 직업이나 배드민턴, 골프, 테니스, 헬스 등 어깨 사용이 많은 운동을 즐기는 사람에게 많이 발생한다. 더욱이 평소 컴퓨터 앞에 앉아 굳은 자세로 오래 있을 때도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어깨충돌증후군은 어깨 근육 파열로 발전할 수 있어 조속히 치료해야 한다. 조기에는 약물치료, 주사치료 및 물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운동치료도 중요하다. 또 최근에는 체외충격파나 관절내시경 시술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미수 웰튼병원 어깨관절센터 소장은 "어깨가 아프면 단순한 어깨 결림이나 오십견으로 생각한다"며 "어깨 위쪽의 통증을 동반하는 충돌증후군은 보존적 요법과 시술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므로 통증 발생 시 신속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